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시선

찬양 | 시선

기도 |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치고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지금 펼쳐질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기 | 사사기 10:1~4

✦ 돌라와 야일 두 사사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다스린 일만 짧게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개역개정] ¹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나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²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십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³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⁴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붓야일이라 부르더라

[쉬운성경] ¹ 아비멜렉이 죽은 뒤,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사는 부아의 아들 돌라였습니다. 부아는 도도의 아들이었고, 돌라는 잇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 성에서 살았습니다. ² 돌라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십삼 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돌라는 죽어서 사밀에 묻혔습니다. ³ 돌라가 죽은 뒤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야일은 길르앗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야일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십이 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⁴ 야일은 삼십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삼십 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길르앗에 있는 삼십 개의 마을을 다스렸습니다. 그 마을들은 아직까지도 야일 마을 이라고 불립니다.



질문나눔

1.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각각 이름이 무엇이고,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나요?
2.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나요? 성경은 두 사람에게 대해 무엇을 알려 주나요?

삶의 이야기

1.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꾸준히 하는 일이 있나요?
2. 우리 가족이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들을 나눠봅시다. (밥 짓기, 설거지, 숙제, 출근 등) 그중에 하나라도 멈추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축복 | 하나님은 큰 일을 하지 않은 돌라도 세워 쓰셨어.

()이/가 매일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다!

마침기도 | 하나님, 성경은 돌라와 야일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저희도 눈에 띄는 일만 좇지 않게 해 주시고, 오늘 맡겨진 자리를 내일도 지키는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기대

찬양 | 기대(주 안에 우린 하나)

기도 |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 편한 말만 골라 듣지 않게 해 주세요. 말씀이 저희 마음을 만지도록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기 | 사사기 10:13~16

❖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세요.

[개역개정] ¹³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¹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¹⁵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¹⁶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쉬운성경] ¹³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따라서 나도 다시는 너희를 구해 주지 않을 것이다. ¹⁴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에게 가서 도와 달라고 하여라.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해 달라고 하여라.” ¹⁵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¹⁶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중에 있던 다른 나라 신들을 없애 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질문나눔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2.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다고 적혀 있나요? 그대로 찾아 읽어 보세요.

삶의 이야기

1. 부모님이 "이번엔 안 봐준다"고 하셨는데도 결국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2.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지 나눠봅시다.

축복 |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

()이/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단다!

마침기도 | 이스라엘이 아파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돌아서게 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